

# 2015년 4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내용 (총 21개)

| 연번  | 표제항<br>(영역별<br>가나다순) | 수정 전  | 수정 후   | 비고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|
| 1-1 | 각호02                 | %   | 각호02(各號)[가코] 「명사」 각각의 조항.  | 표제어 추가           |
| 1-2 | 뒤엿것                  | %   | 뒤엿-것[-에껀/-엔껀] [뒤엿것만[-에껀/-엔껀-]] 「명사」 뒤에 오는 것. 또는 뒤에 있는 것. 「비」 후자.   | 표제어 추가           |
| 1-3 | 앞엿것                  | %   | 앞엿-것[아페껀/아펜껀] [앞엿것만[-페껀/-펜껀-]] 「명사」 앞에 오는 것. 또는 앞에 있는 것. 「비」 전자.   | 표제어 추가           |
| 1-4 | 어제그저께                | %   | 어제-그저께 [Ⅰ] 「명사」 ‘엇그저께[Ⅰ]’의 본말. [Ⅱ] 「부사」 ‘엇그저께[Ⅱ]’의 본말.   | 표제어 추가           |
| 2-1 | 꼼짝                   | 꼼짝 못하다  | 꼼짝 못 하다  | 관용구<br>표제어<br>수정 |
| 2-2 | 말01                  | 말(을)[말(도)] 못하다  | 말(을)[말(도)] 못 하다  | 관용구<br>표제어<br>수정 |
| 2-3 | 주체01                 | 주체(를) 못하다   | 주체(를) 못 하다   | 관용구<br>표제어<br>수정 |
| 3-1 | 검측하다02               | 검사하고 측정하다.  | 「1」 검사하고 측정하다.<br>「2」 『사회』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경호하기 위하여, 의도적으로 설치된 위험물을 찾아내거나 시설물을 점검하여 안전하게 조치하다.  | 뜻풀이<br>추가        |
| 3-2 | 고서03                 | ((동사 어간이나 어미의 ‘-으시-’ 뒤에 붙어))앞뒤 절의 두 사태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.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앞선 것임이 강조된다. ¶그는 나에게 얼른 눈짓을 {하고서} 나가 버렸다./그는 장가를 {가고서} 사람이 달라졌다./너도 치마를 {입고서} 걸어 | 「1」 ((동사 어간이나 어미의 ‘-으시-’ 뒤에 붙어))앞뒤 절의 두 사태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.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앞선 것임이 강조된다. ¶그는 나에게 얼른 눈짓을 {하고서} 나가 버렸다./그는 장가를 {가고서} 사람이 달라졌다./너도 치마를 {입고서} | 뜻풀이<br>추가        |

| 연번  | 표제항<br>(영역별<br>가나다순) | 수정 전  | 수정 후  | 비고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봐./상한 음식을 {먹고서} 배탈이 났다./어머니는 나를 {업으시고서} 병원까지 달려가셨다.   | 걸어 봐./상한 음식을 {먹고서} 배탈이 났다./어머니는 나를 {업으시고서} 병원까지 달려가셨다.<br>「2」((동사의 어간이나 ‘아니다’의 어간 뒤에 붙어))앞의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뒤의 사실이 성립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. ¶그래 {가지고서} 오늘 안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겠어?/바보가 {아니고서} 그런 말을 하지는 않겠지.  |           |
| 3-3 | ㄴ 데                  | [1]<br>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. ¶여기가 우리 {고향인데}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지./날씨가 {추운데} 외투를 입고 나가거라./그 사람이 정직하기는 {한데} 이번 일에는 적합지 않다./저분이 그럴 분이 {아니신데} 큰 실수를 하셨다./제가 {알아보았사운데} 사실은 그와 다르웁니다.<br>[2]<br>해할 자리에 쓰여,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. ¶나무가 정말 {큰데}./어머님이 정말 {미인이신데}. | [1]<br>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. ¶여기가 우리 {고향인데}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지./날씨가 {추운데} 외투를 입고 나가거라./그 사람이 정직하기는 {한데} 이번 일에는 적합지 않다./저분이 그럴 분이 {아니신데} 큰 실수를 하셨다./제가 {알아보았사운데} 사실은 그와 다르웁니다.<br>[2]<br>「1」해할 자리에 쓰여,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. ¶나무가 정말 {큰데}./어머님이 정말 {미인이신데}.<br>「2」((의문사와 함께 쓰여))일정한 대답을 요구하며 물어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. ¶그 옷은 {얼만데}?/누가 제일 {예쁜데}? | 뜻풀이<br>추가 |
| 3-4 | 술래잡기                 | 아이들 놀이의 하나. 여럿 가운데  | 「1」=숨바꼭질 「1」.   | 뜻풀이       |

| 연번  | 표제항<br>(영역별<br>가나다순) | 수정 전  | 수정 후  | 비고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다른 숲은 아이들을 잡는데, 술래에게 잡힌 아이가 다음에 술래가 된다. ≍술래놀이 「1」.   | 「2」아이들 놀이의 하나. 여럿 가운데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다른 아이들을 잡는데, 술래에게 잡힌 아이가 다음에 술래가 된다. ≍술래놀이 「1」.  | 추가        |
| 3-5 | 저리다01                | <p>「형용사」 【…이】</p> <p>「1」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. 『나는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꼭 숙이고 앉아 있으면서도, 다리가 {저리고} 아파서 몸을 자주 뒤틀면서 자세를 바로잡곤 하였다.≪황석영, 어둠의 자식들≫</p> <p>「2」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쑥쑥 쑤시듯이 아프다. 『또다시 오늘 새벽의 일이 떠오르며, 뒷머리가 바늘로 후비듯 {저려} 왔다.≪최인훈, 가면고≫</p> <p>「3」 가슴이나 마음 따위가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. 『박 초시가 죽기 전날에 떼 지어 몰려가서 창고를 털어 냈던 점촌과 새끼내 사람들은 괜히들 마음이 {저려} 초상집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.≪문순태, 타오르는 강≫</p> | <p><u>【I】 「형용사」 【…이】</u></p> <p>「1」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. 『나는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꼭 숙이고 앉아 있으면서도, 다리가 {저리고} 아파서 몸을 자주 뒤틀면서 자세를 바로잡곤 하였다.≪황석영, 어둠의 자식들≫</p> <p>「2」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쑥쑥 쑤시듯이 아프다. 『또다시 오늘 새벽의 일이 떠오르며, 뒷머리가 바늘로 후비듯 {저려} 왔다.≪최인훈, 가면고≫</p> <p>「3」 가슴이나 마음 따위가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. 『박 초시가 죽기 전날에 떼 지어 몰려가서 창고를 털어 냈던 점촌과 새끼내 사람들은 괜히들 마음이 {저려} 초상집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.≪문순태, 타오르는 강≫</p> <p><u>【II】 「동사」 【…이】</u></p> <p>「1」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다. 『두 팔로 온몸을 지탱하고 있다. 손가락 마디가 {저린다}.≪황석영, 입석 부근≫/잠시 동안 궁둥이 밑에 깔려 있었는데도 손은 곧 {저린다}. 이럴 땐 손이 없으면 좋겠다.≪김승옥, 확인해 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≫</p> <p>「2」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쑥쑥 쑤시다. 『무슨 일인지 꺾밥이 훑</p> | 뜻풀이<br>추가 |

| 연번  | 표제항<br>[영역별<br>가나다순] | 수정 전   | 수정 후  | 비고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<p><u>달아오르면서 목덜미가 {저린다}.</u><br/> <u>《천승세, 낙월도》/장난으로 그</u><br/> <u>리는 것이런만 발바닥이 얼얼하</u><br/> <u>며 복숭아뼈까지 {저린다}.</u>《<u>최명</u><br/> <u>희, 혼불》</u><br/> <u>「3」가슴이나 마음 따위가 못</u><br/> <u>견딜 정도로 아픈 느낌이 들다.</u></p>   |           |
| 3-6 | 전율02                 | <p>몹시 무섭거나 두려워 몸이 벌벌<br/>떨림. ≡계율02(悸慄)·공률03<br/>(恐慄)·능궁·순율·전송03(戰<br/>悚)·전전율률(戰戰慄慄). ¶{<u>전율</u><br/><u>을</u>} <u>느끼다/강제 수용소의 이야</u><br/><u>기는 그를 공포와 {전율에} 휩싸</u><br/><u>이게 했다./충직하였던 하인들이</u><br/><u>죽어 나가던 그해도 {전율} 없이</u><br/><u>회상할 수가 없다.《박경리, 토지</u><br/><u>》</u></p> | <p><u>「1」몹시 무섭거나 두려워 몸이</u><br/><u>벌벌 떨림. ≡계율02(悸慄)·공률</u><br/><u>03(恐慄)·능궁·순율·전송03</u><br/><u>(戰悚)·전전율률(戰戰慄慄). ¶강</u><br/><u>제 수용소의 이야기는 그를 공포</u><br/><u>와 {전율에} 휩싸이게 했다./충직</u><br/><u>하였던 하인들이 죽어 나가던 그</u><br/><u>해도 {전율} 없이 회상할 수가</u><br/><u>없다.《박경리, 토지》</u><br/> <u>「2」몸이 떨릴 정도로 감격스러</u><br/><u>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¶<u>설</u></u><br/><u>화 속에 감춰진 정치적·사회적</u><br/><u>의미들은 때로 내게 {전율과도}</u><br/><u>같은 감동까지 주었다.《이문열,</u><br/><u>시대와의 불화》/감동이란 이상</u><br/><u>한 것이다. 나는 전신에 일종의</u><br/><u>{전율을} 느꼈다. 용기라는 것이</u><br/><u>어떤 것인가를 깨달은 느낌이였</u><br/><u>다.《이병주, 행복어 사전》/윤은</u><br/><u>피부로 스며드는 행아의 체온을</u><br/><u>느꼈다. 감미로운 {전율이} 윤의</u><br/><u>전신을 스쳐 갔다.《선우휘, 깃발</u><br/><u>없는 기수》</u></p> | 뜻풀이<br>추가 |
| 3-7 | 전율하다                 | <p>몹시 무섭거나 두려워 몸이 벌벌<br/>떨리다. ≡계율하다·공률하다·<br/>능궁하다·순율하다·전송하다03<br/>·전전율률하다. ¶우리는 이불을<br/>뒤집어쓰고 다가오는 발자국 소<br/>리에 {전율했다}./몇몇은 분노로<br/>더욱 격렬해졌지만 우리 대부분</p>  | <p><u>「1」몹시 무섭거나 두려워 몸이</u><br/><u>벌벌 떨리다. ≡계율하다·공률하</u><br/><u>다·능궁하다·순율하다·전송하</u><br/><u>다03·전전율률하다. ¶우리는 이</u><br/><u>불을 뒤집어쓰고 다가오는 발자</u><br/><u>국 소리에 {전율했다}./몇몇은 분</u><br/><u>노로 더욱 격렬해졌지만 우리 대</u></p>   | 뜻풀이<br>추가 |

| 연번  | 표제항<br>[영역별<br>가나다순] | 수정 전   | 수정 후   | 비고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은 경악하고 {전율하고} 혼란에 빠졌다.《이문열, 그해 겨울》   | 부분은 경악하고 {전율하고} 혼란에 빠졌다.《이문열, 그해 겨울》<br><br>「2」(비유적으로)감격에 겨워 몸이 떨리다. 『나는 그의 생생한 연기를 보고 {전율했다}.   |        |
| 3-8 | 화두04                 | 「1」 이야기의 첫머리. 『{화두를} 바꾸다/영철이는 또 이데올로기 문제를 가지고 {화두를} 꺼냈다./안평의 본시의 성질이 또 나오려는 것을 본 수양은 {화두를} 돌리기 위해서 끼어들었다.《김동인, 대수양》<br><br>「2」 『불교』 선원에서, 참선 수행을 위한 실마리를 이르는 말. 『{화두를} 던지다/{화두를} 잡다. | 「1」 이야기의 첫머리. 『{화두를} 바꾸다/영철이는 또 이데올로기 문제를 가지고 {화두를} 꺼냈다./안평의 본시의 성질이 또 나오려는 것을 본 수양은 {화두를} 돌리기 위해서 끼어들었다.《김동인, 대수양》<br><br>「2」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것. 『{화두가} 되다/{화두로} 삼다/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큰 {화두는} 다음 달에 있을 축구 시합이다.<br><br>「3」 『불교』 선원에서, 참선 수행을 위한 실마리를 이르는 말. 『{화두를} 던지다/{화두를} 잡다. | 뜻풀이 추가 |
| 4-1 | 고문04                 |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<u>육체적</u> 고통을 주며 신문함. <u>능고신07(拷訊)·고형01(苦刑)</u> . 『전기 {고문}/ {고문을} 받다/{고문에} 시달리다/혹독한 {고문을} 당하다.  |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<u>육체적·정신적</u> 고통을 주며 신문함. 『전기 {고문}/ {고문을} 받다/{고문에} 시달리다/혹독한 {고문을} 당하다.  | 뜻풀이 수정 |
| 4-2 | 노동보호                 | 노동 과정 중에 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며 노동의 악조건을 없애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<u>증진</u> 시키는 일.  | 노동 과정 중에 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며 노동의 악조건을 없애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<u>증진</u> 하는 일.   | 뜻풀이 수정 |
| 4-3 | 다07                  | 「1」 ((‘이다’의 어간,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‘-으시-’, ‘-였-’, ‘-겠-’ 뒤에 붙어))해라할 자리에 쓰여, <u>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.</u>  | 「1」 ((‘이다’의 어간,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‘-으시-’, ‘-였-’, ‘-겠-’ 뒤에 붙어))해라할 자리에 쓰여, <u>어떤 사건이나 사실, 상태를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</u>  | 뜻풀이 수정 |

| 연번  | 표제항<br>[영역별<br>가나다순] | 수정 전  | 수정 후  | 비고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¶물이 {맑다}/사람은 생각하는 {동물이다}/그분은 참 {부지런하시다}/아기가 잠을 오래 { 잤다}/동생이 일 등을 {했다}/고향에 가 보는 것이 노인의 {소원이었다}/하늘을 보니 눈이 {오겠다}/약속을 꼭 {지키겠다}.   | 어미. ¶물이 {맑다}/사람은 생각하는 {동물이다}/그분은 참 {부지런하시다}/아기가 잠을 오래 {잤다}/동생이 일 등을 {했다}/고향에 가 보는 것이 노인의 {소원이었다}/하늘을 보니 눈이 {오겠다}/약속을 꼭 {지키겠다}.  |            |
| 5-1 | 어요                   | (( <u>끝음절 모음이 ‘ㄱ, ㄴ’가 아닌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</u> ))해요할 자리에 쓰여, 설명·의문·명령·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. 어미 ‘-어’와 보조사 ‘요17’가 결합한 말이다. ¶지금 밥 {먹어요}/벌써 밥 {먹어요}?/빨리 밥 {먹어요}/우리 같이 {먹어요}/물을 삼키지 말고 {빨어요}/그동안 맘고생 많이 {하셨겠어요}.<br>※ <u>‘이다’와 ‘아니다’의 어간 뒤에 붙을 때는 ‘-에요’로 나타나기도 한다.</u> | (( <u>끝음절 모음이 ‘ㄱ, ㄴ’가 아닌 용언의 어간 뒤나 ‘이다’의 어간 뒤에 붙어</u> ))해요할 자리에 쓰여, 설명·의문·명령·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. 어미 ‘-어’와 보조사 ‘요17’가 결합한 말이다. ¶지금 밥 {먹어요}/벌써 밥 {먹어요}?/빨리 밥 {먹어요}/우리 같이 {먹어요}/물을 삼키지 말고 {빨어요}/그동안 맘고생 많이 {하셨겠어요}/나는 {학생이에요}/그것은 제 물건이 {아니어요}.             | 문법정보<br>수정 |
| 5-2 | 으려니01                | (( <u>‘르’를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</u> ))마음속으로 추측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. ‘-겠거니’에 가까운 뜻을 나타내며 주로 동사 ‘하다’, ‘생각하다’, ‘싶다’ 따위의 안기는 문장을 만든다. ¶그가 지금쯤은 집에 도착해 {있으려니} 하고 찾아갔다./저 여자도 한때는 젊음을 {과시했으려니} 하고 생각했다.  | (( <u>‘르’를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 뒤에 붙어</u> ))마음속으로 추측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. ‘-겠거니’에 가까운 뜻을 나타내며, 주로 동사 ‘하다’, ‘생각하다’, ‘싶다’ 따위와 함께 쓰인다. ¶그가 지금쯤은 집에 도착해 {있으려니} 하고 찾아갔다./저 여자도 한때는 젊음을 {과시했으려니} 하고 생각했다./ <u>그 시간이면 공원에 사람이 별로 {없으려니} 하고 늦게 출발했는데 도착해 보니 사람이 많았다.</u> | 문법정보<br>수정 |
| 5-3 | 음10                  | (( <u>어간 말음이 자음인 동사 어간 뒤에 붙어</u> ))명사를 만드는 접미사. ¶{믿음}/{죽음}/{웃음}/{걸음}.   | (( <u>‘르’를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</u> ))명사를 만드는 접미사. ¶{믿음}/{죽음}/{웃음}/{걸음}/{젊음}/{수줍음}.   | 문법정보<br>수정 |